

1. 다음 중 한자 표기가 옳게 된 것은?

- ① 妄覺 ② 妄却 ③ 忘刻 ④ 忘却 ⑤ 望覺

2. 다음 한자의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情話 ② 贖罪 ③ 死滅 ④ 被動 ⑤ 盛衰

3. 다음 밑줄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②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떨어졌다.
 ③ 전에는 더러 갔지마는 요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
 ④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⑤ 놀고 싶을 때 실컷 놀아라.

4. 다음 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정서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새로 걸러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의 높기가 한 자로세.
 밥을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빛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하려고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보리타작(打麥行타맥행) / 정약용

- ① 장소를 옮겨가며 장면을 묘사
 ② 낮에서 밤으로 시간이 바뀜.
 ③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동
 ④ 계절의 순번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를 노래
 ⑤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세계 드러냄.

5. 박지원의 작품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과 신용이나 부지런함을 강조하여 서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작품은?

- ① 허생전, 양반전 ②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③ 호질, 열하일기 ④ 역학대로전
 ⑤ 열녀함양박씨전

6. 다음 소설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 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 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두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견뎌 걷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① 생의 의지 ② 본능적 욕구
 ③ 미래의 몽상 ④ 과거의 기억
 ⑤ 아내에 대한 사랑

7. 다음 시에서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할 때 서정적 자아의 정서의 흐름으로 옳게 된 것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 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숨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 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 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석문(石門) / 조지훈

- ① 그리움, 지겨움 ② 기다림, 원망감
 ③ 기대감, 상실감 ④ 느긋함, 조급함
 ⑤ 자책감, 혐오감

8. 다음 밑줄 친 소재에서 감정이입 된 표현이 아닌 것은?

비로봉 동쪽은 아낙네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樹海)였다. 설 자리를 삼가, 구중심처(九重深處)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樹中) 공주이던가!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애화(哀話) 맺혀 있는 용마석(龍馬石) — 마의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陵)이라기에는 너

무 초라한 무덤 — 철책(鐵柵)도 상석(床石)도 없고, 풍우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마의 태자 무덤에서 느껴지는 처량함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서녘 하늘에 화석(化石)된 태자의 애기(愛騎) 용마의 고영(孤影)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素服)한 백화(白樺)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中天)에 서럽다.

- 산정무한 / 정비석

- ① 자작나무 ② 무덤 ③ 비석 ④ 구름 ⑤ 달

9. 다음 중 나를 기준으로 촌수가 가장 먼 것은?

- ① 고모 ② 당숙 ③ 백부 ④ 숙부 ⑤ 외종형

10. 다음 중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가뭇-가물 ② 고깃간-푸줏간 ③ 댕돌-뿔돌
④ 살고기-살코기 ⑤ 벌레-버러지

11.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돌잔치, 덧니, 툇마루
② 강남콩, 사흘날, 꺾꽂이
③ 사글세, 손가락, 셋방
④ 끄나풀, 여닫이, 아무튼
⑤ 털어먹다, 흘몸, 햇별

12. 다음 중 표기가 옳게 된 것은?

- ① 깍뚝이 ② 곰곰히 ③ 배불뚜기
④ 삼질날 ⑤ 늪수그레하다

13. 다음 단어들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밟고→[밭꼬] ② 밟다→[밭따] ③ 째지→[잘찌]
④ 넓다→[넉따] ⑤ 맑게→[말께]

1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록예찬 / 이양하

- ① 인지상정 ② 죽마고우 ③ 팔방미인
④ 갑남을녀 ⑤ 동량지재

15. 다음 중 어법이 옳게 된 문장은?

- ① ...말겠다고

②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들만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안다.

③ ...틀리다

④ 제일동포들은 일본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⑤ 이 진공청소기는 소음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

16.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경복궁 Gyeongbok-gung
② 낙성대 Nakseongdae
③ 도봉구 Dobong-gu
④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⑤ 학여울 Hangnyeoul

17. 다음 <보기>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알맞게 짝지어 나눈 것은?

- a.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 강조
b. 청소년 비행의 뜻
c. 향락적 분위기
d. 청소년 비행의 실태
e. 전인 교육 강화
f. 가치 뜻 부재
g. 사랑, 관심 촉구
h. 퇴폐문화로부터 청소년 보호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 ① g bc ad eh
② bc ae fh dg
③ bd cf eh ag
④ bd ch ef ag
⑤ cf d egh a

18. 아래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 ① 묻어 ② 따로 ③ 까서
④ 멍이 든 / 맛이 든 ⑤ 들이던

19. 다음 작품에서 약수(弱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휘는?

天上(천상)의 牽牛(견우)織女(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七夕(칠월 칠석) 一年一度(일년일도)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쓰쳤는고.

-규원가 / 허난설헌

- ① 청산 ② 구름 ③ 호박꽃
④ 명월 ⑤ 도화행화

20. 다음 중 민요에 가까운 4행 향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모죽지랑가 ② 서동요 ③ 풍요
④ 헌화가 ⑤ 도솔가